

特別寄稿

向日齋, 해바라기와 迎日의 인연

로타리코리아常任顧問 權伍信

포항운하(浦項運河) 뱃길 주변에 해바라기가 지천으로 피었다. 여름 끝 해바라기와 (영일)迎日浦貞)의 인연(因緣)은 1446년 단종복위(端宗復位)에 가담했다 경상도 영일 대잡산(慶尙道 迎日 大峯山)으로 유배를 온 사정공 휘 수해(司正公 誨 壽海)에 의해서 시작됐다.



향일재: 포항시 대정16번길

司正公이 유배지(포스코 주택단지 내 迎日臺와 音樂堂 사이)에서 처음 한 일이 적소(齋所)에 향일재(向日齋)란 편액을 걸고 임금을 뜻하는 해바라기를 심는 일이었다. 울타리처럼 심어졌던 꽃이 유배 3년이 지나면서 주변 산으로 퍼져 해맞이 땅 迎日 대잡산(大峯山)이 노란색으로 변했다.

1410년에 예전 대죽리(禮泉 大竹里)에서 경력공 휘 관(經祿公 誨 寬)의 넷째로 태어나신 司正公은 좌의정(左議政)을 지내신 종조부 문정공 휘 진(文稜公 誨 軫)으로부터 수학하여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즐겨 읽으면서 절의불의(節義不義)를 부르짖는 청년시절을 보냈다.

1446년 단종복위(端宗復位)라는 큰 뜻을 품고 밤마다 端宗의 안위를 빌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그 다음해 단종복위가 탄로



사정공 묘소: 경주시 安康邑 양월리 산려

나자 백형(權山海 단종의 이모부)이 자결(自決)하는 날, 慶尙道 迎日 大峯山으로 유배됐다.

지금은 포스코 주택단지로 바뀐 대잡산(大峯山) 적소에서 두문불출(杜門不出)하면서 문지방에 향일재(向日齋)의 편액을 걸고 端宗이 유배중인 영월을 향해 하루 4백씩 짚하는 것으로 일련단심(一片丹心) 선왕(先王)에 대한 충정(忠情)을 기리고 있다. 1990년에 발견된 영일군사(迎日郡史)에도 공의 나이가 45살(1455년) 되던 해 영일에 들어 온 것으로 기록돼 있다.

1466년 공은 향년 57세에 세상을 하직하자 자신이 해바라기를 직접 심었던 대잡산(大峯山) 관동(단종에게 짚을 올린 곳)에 묻혔다. 사후 공을 기리는 지역주민과 후손(後孫)들이 해바라기를 더 심어 대잡산 일대는 여름만 되면 지천으로 핀 해바라기로 인해 시인(詩人) 묵객(墨客)들이 술하게 찾아 관산(觀山)을 했던 곳으로 이름났다.

1469년 해바라기 산에 추원재(追遠齋)가 建立되어서 後孫과 儒林들이 향사를 받들었으나 추원재 역시 포스코 주택단지에 편입, 경주시 安康邑 두류리로 이전되고 지금은 향일재(向日齋)와 묘소(墓所)가 있었던 관동에서 대잡산(大峯山) 아래로 2km쯤 떨어진 곳(포항시 대정16번길)에 세워진 유희비(遺墟碑)만 남아 있다.

이 일대에서 살았던 사정공의 후손들이 조선후기(朝鮮後期)까지 해바라기 산을 가꾸었으나 이후부터 차츰 줄어들다가 포스코 주택단지조성이 본격화된 1970년 들어 완전 사라졌다. 市郡으로 나뉘져 있을 때는 포항시화(浦項市花)를 해바라기로 지정 하



자는 여론이 있었을 정도로 포항의 상징(象徵)이 됐다.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原產地)인 해바라기는 최대 8m까지 자라며

지름 30cm크기의 꽃이 태양(太陽)을 따라 움직이는 한해살이다.

安東權氏 人物論과 귀봉공(龜峯公) 권선생유사(權先生遺事)집을 지은 공의 13대손 權赫根(78)씨와 유희비(遺墟碑)를 관리하는 後孫(權赫祚,74)씨에 따르면 공의 墓所는 1968년 慶州市 安康邑 두류리 비봉산으로 이장되고, 2013년엔 묘소일대가 폐기물 공단(廢棄物 工團)으로 조성되면서 安康邑 양월리 산려로 다시 이장(移葬)됐다. 후손들은 墓所와 분산재사(鳳山廬舍) 주변에 해바라기를 심고 선대(先代)의 충절정신(忠節精神)을 기리기로 했다.

1938년 司正公 墓所가 이장 되던 날은 慶州, 浦項일대 서원 및 향교(書院 鄉校) 유사(有司)를 비롯한 유희(儒林)들과 포항제철, 浦項市 迎日郡, 月城郡 인사들이 나와 조의를 표하는 등 42명 상두꾼들이 맨 대를 상여(喪輿)를 따른 행렬이 무려 1km나 되었다고 한다.

공은 사후(死後)에도 유배생활(流寓生活)을 했던 그의 생애(生涯)만큼이나 유택(幽宅)이 안정되지 못했다. 후손(後孫)들 역시 백년 금고형(百年 禁錮刑)에 처해져 과거(科擧)를 보지 못하고 慶州 迎日, 蔚山 일대로 흩어져 살다 공의 현신대에 이르러 이언적(李彦迪)의 문하(門下)에서 수학(修學)했던 권덕린(權德麟)이 처음으로 大科에 급제하고 그로부터 관료가 열린 했지만 역적(逆賊)의 후손이라는 골레로 인해 공필(窮乏)한 생활을 면치 못했다.

대과에 급제한 귀봉공(龜峯公)의 아들 매헌공(梅軒公 權士敏)은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망우당(忘憂堂 곽재우)과 함께 慶南 화왕산, 팔공산을 근거지로 한 전투에서 왜적을 꺾뜨려 영남(嶺南)의 좌도 10여 고을을 구한 공을 세워 언양현감(縣監)과 좌승지(左承旨)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으로 추증(追贈)되고 정려(旌闡)를 받은 의병장이시다. (자료인용: 迎日郡史, 權赫根 著 龜峯遺事, 安東 權氏 人物論, 梅軒實記)

다른 파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임시총회는 지난 6월 17일 부녀회 총회 이후 보다 더 원활한 부녀회운영을 위하여 회칙 개정안을 상정하여 <수석부회장과 상임부회장을 두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회칙 일부를 개정하였다.

회칙 개정이 끝나고 임원선임에서 전임 부녀회 부회장들과 지문위원 등 12명이 옆쪽 사무실에서 진지한 협의를 하여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총무를 선임했다.

선임된 임원은 수석부회장에 김순행, 상임부회장에 이월자, 임우향, 일반부회장에 송재영, 권남희, 이승한, 권숙향, 김남교, 김갑윤, 이현는, 권태욱, 권계자, 김동행, 총무는 권영애이다.

임시총회를 마치고 <청운식당>에서 회기에애향 분위기 속에서 비빔밥으로 점심식사를 하면서 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후식으로 수박과 가지떡, 떡발, 그리고 이슬한 부회장이 자기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포도를 가지고와서 푸짐한 점심 밥상이 되기도 하였다.

<보도부장 권영간>

贈領議政行禮曹判書吉昌府院君諱愃

증 영의정 행 예조판서 길창부원군 휘협

<지난호에 이어>

아들 대임(大任)이 귀히 되자 의정부(議政府)좌찬성(左贊成)으로 추증되고 길흥군(吉興君)에 봉해졌으며 대광보국승록대부 의정부 우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으로 가증되었다.

장남 대임(大任)은 선조 28년에 출생하여 총민(聰敏)하니 선조 7년 정선유주(貞善翁主)를 상(尙)하여 길성위(吉城尉)의 작위를 받고 임금의 총애가 깊었는데 필법(筆法) 또한 우수하니 상사(賞賜)가 많았다. 인조 2년 이괄의 난이 일어 공주로 몽진할 때 호가(扃駕)한 공으로 봉헌대부(奉獻大夫)가 되고 인조 13년 길성군(吉城君)이 되었다. 병자호란에 남한산성에서 근왕(勤王)하여 승덕대부(崇德大夫)로 가자되고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이 되었다. 3년 후 심양(瀋陽)에 가 볼모를 데러오니 사람들이 공의 덕에 감복하였다. 인조 23년에 51세로 졸하니 임금이 진도(震悼)하였다. 묘소는 서울 구로구 궁동 조교묘 계하에 합부이고 미수 허목(許穆)이 신도비문을 지었다.

차남 대명(大鳴)은 선조 30년에 출생하여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이고 3남은 대식(大式)이다.

필중(必中)

선조 12년 한성에서 출생하여 임난 유공으로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고 광해군 5년 증광시 유학으로 생원 급제하였다. 광해군 7년 의금부(義禁府)도사(都事)를 지내고 인조 22년 졸하니 향년 66세였다. 승정원좌승지로 추증되었고 묘소는 충북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에 있다. 장남 대덕(大德)은 선무원종공신으로 인조 5년 무과하고 통정대부 부사에 이르렀다. 차남은 대순(大尊), 3남은 대수(大澍), 4남 대주(大胄), 5남 대화(大華), 6남 대하(大夏)로 자손이 번창하였다.

경중(景中)은 선조 14년에 출생하여 임난 유공으로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선조 38년 무과하여 무안현감에 나가고 인조



△길성군 오위도총부 도총관 대임묘소

3년에 45세로 졸하니 병조참의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충북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에 있다. 아들 대복(大復), 대장(大壯)형제는 임난유공으로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정중(正中)은 선조 17년에 출생하여 임난 유공으로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인조 5년 정묘호란에 감찰로서 임금을 강화도로 호종하고 환도하여 석성현감에 제수되었다. 인조 18년 57세로 졸하니 승정원좌승지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경기 부천시 있었는데 파주 급촌 낙원공원묘지로 이장하였다.

계자 대운(大胤)은 광해 7년에 출생하여 현종 3년 갑역을 거쳐 재령 수령을 지내고 숙종 10년 통진군수를 지냈다. 묘소는 부천에 있었는데 파주 급촌 낙원공원묘지로 이장하였다.

근중(謹中)은 선조 19년 출생하여 임난유공으로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인조 14년 회인현감을 지내고 효우문후(孝友敦厚)하고 부모상에 여묘하였다. 효종 1년 65세로 졸하니 이조참판에 추증되고 후에 아들 대운(大運)이 귀히 되니 영의정(領議政)에 가증되었다. 묘소는 구로구 궁동에 쌍분이며 미수 허목(許穆)이 비문을 지었다. 아들은 대운(大運), 대운(大胤), 대원(大運), 대원(大運)과 2녀를 두었다.

석담공 대운(大運)은 공은 광해 4년(1612년) 출생하여 인조 20년(1642년) 31세에 식년시 합격하고 인조 27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고 현종 11년(1670년) 호조판서로 승차하였으며 연이어 형조판서, 병조판서를 거쳐 숙종이 즉위하자 우의정에 오르고 이어

雲谷書院誌

(은곡서원지)

<지난호에 이어>

2. 은곡서원 연혁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나서서 멀리 조

망(眺望)하면 공이 바람을 타고 치달려 나는 모습을 보는 듯하고 이 문에 의지하여 멀리 바라보면 공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을 보는 것 같으며 마치 개산(伽藍)의 바람이 처음 불어오면서 유구한 세월이 흘러 변한 것에 이를 것 같으면 공이 비상(悲傷)한 마음으로 머무르며 배회한 것을 보는 것과 방불(彷彿)하다. 태양이 처음 떠오르고 까마귀와 까치가 지저귀면 분명히 공이 측량(側量)히 슬픈 마음으로 노래하고 읊는 것을 보게 된다. 몇 년 동안 박(朴·석(薛)·김(金) 세 성(姓)이 전승(傳襲)하였는가를 생각할 때 공의 마음은 반드시 방황하고 되돌아보며 그리워하였을 것이요 어느 곳에 오무(五鼓)이 황폐되어있는지를 생각할 때 공의 마음은 반드시 강개(慷慨)히 맺혀 북받치고 막혀 있었을 것이다. 이 문이 천년토록 기울지 않으면 공의 이 마음도 또한 천년을 가도록 바뀌지 않을 것이며 이 문이 만년토록 길이 존재한다면 공의 이 마음도 만년이 지나도록 밝을 것이다. ‘견심(覓心)’이라 편액을 한 것은 진실로 볼 수 있음을 얻음이나 정녕 명언(名

言)인데 하물며 한 사람 안에 배향한 두 현인이 다만 경주의 여망(餘望)에 따른 것으로서 태사공의 후손임에이리오.”

같은 달 8월 21일에는 안동 태사묘의 승보당(崇報堂)에서 경상도내의 각 종중 대표 5백여 명이 시소(試所)에서 제회(齊會)를 열고 드디어 추원사에 위판(位版)을 봉안(奉安)할 날짜를 정하고 천년 시조의 사당에 배향위(配學位)가 없을 수 없다 하여 죽림과 귀봉 두 공을 올려 배향할 일을 의논하여 확정하였다.

9월에는 구강서원(龜岡書院 : 익재 이제현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영정과 위패를 모신 서원)과 함창 및 상주(尙州) 종중에서 조전이 왔는데 이 달에 서울에서 판서(判書)로 있던 영의정 변암(樊巖) 채재공(蔡濟恭)이 향사 때 쓰는 축문을 미리 지어 보내었다.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는 그 축문은 다음과 같다.

“엿드려 아뢰건대 본조(本朝) 신라에 대한 마음을 밝혀 성인(聖人)의 권도(權道)에 통달하시었으므로 이곳 경주에 의거하여 저희의 제물을 진설하고 이에 계춘(季春)을 맞았사은지라 삼가 밝은 술과 생패(牲幣)로 상헌(常薦)을 펼치오며 죽림공과 귀봉공을 배식(配食)하오니 바라건대 휴향

좌의정이 되고 숙종 15년 숙종이 원자 경종을 책봉하면서 기사환교(己巳換局)이 일어나니 공은 78세에 영의정(領議政)이 되었다. 숙종 25년 88세로 졸하니 숙종은 “벼슬을 맡아 오래도록 청백(淸白)하였는데 가상하다”고 하였다. 아들은 위(璣)와 규(圭)를 두었다.

심중(審中)은 선조 21년 출생하여 임난유공으로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인조 2년 증광시 진사 급제하고 좌랑에 이르렀으나 인조 19년 54세로 졸하니 좌승지로 추증되었다. 묘소는 부천에 있었는데 전북 임실군 삼계면 인리로 이장하였다. 아들 대민(大敏)은 정주로 낙향하였고 대익(大益)은 숙종 22년 무과하여 홍양현감, 하동부사를 지냈다.

위중(偉中)은 선조 31년 출생하여 임난유공으로 선무원종공신에 녹훈되었다. 광해 9년 진사가 되었는데 아들 대재(大載)가 귀히 되어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돈간재(敦艱齋) 대재(大載)는 광해군 12년 출생하여 인조 24년 식년시 생원 진사 양장에 급제하고 효종 4년 별시문과 을과에 급제하였다. 또 효종 9년 문과 증시에서 정자(正字)로 병과 급제하였다. 성균관 전직, 창평현감을 지내고 숙종 1년 형조참의를 거쳐 전라도관찰사가 되고 들어와 숙종 5년 대사헌, 숙종 10년 예조판서가 되었다. 숙종 15년 흥문관제학과 호조판서가 되고 기로사에 들어갔는데 70세에 졸하였다. 서화(書畵)에 능하여 저술 독역수차(讀易手劄), 중용변의(中庸辨疑), 사림평요(士林評要) 등을 남겼다. 묘소는 구로구 궁동 선교묘 아래로 명봉하였다.

대재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장남 해(階)는 인조 7년에 출생하여 현종 1년 식년시 급제하고 현종 6년 정시문과 급제하여 승문원 부정자가 되었다. 현종 15년 고부사(告誨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와 사간원 정언이 되고 현종 16년 경상도 어사(御史)로 나갔다. 숙종 5년 남인의 반목으로 청도로 유배되었는데 숙종 15년 기사환국으로 대사간, 대사성, 제학, 평안도관찰사, 호조참판, 형조참판을 지냈다. 숙종 23년 69세로 졸하였다. <끝>

하소서”

그런데 ‘능동실기(陵洞實記)’ 등에는 변암 체재공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 또 하나의 상향 축문이 실려 있다. 그 축문은 다음과 같은데 여기에는 죽림·귀봉공에 대한 배향의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인(聖人)의 권도(權道)에 통달하여 생민의 조상이 되시니 공덕은 간척(簡策)에 흘러 전하고 예도(禮度)는 조두(俎豆)에 풍성히 담겼나이다. 어찌 안동에서 제향이 없으리오마는 옛 서울 경주가 귀한 바라 이에 근본에 보답하는 마음이 나오나니 바라옵건대 미약한 정성을 감조(鑑照)하소서.”

같은 무렵에 참판 이현경(李獻慶)이 미리 지은 봉안축문(奉安祝文)과 ‘영보당기(永報堂記)’를 지어 보내었는데 영보당 기문은 앞서 소개하였고, 또 이때 승지(承旨) 권익(權穉)의 영보당 상량문도 도착하였는데 앞서 소개한 바이다.

이 달에도 노당(魯堂)과 국당(菊堂)의 문중 돈이 속속 들어왔는데 모월 모일 미시(未時, 오후 2시)를 잡아 이정재(李稷采)가 사당에 모실 위판(位版)을 썼다. 그 위판은 태사공은 ‘태사 권선생(太師權先生)’이라 하고 죽림은 ‘죽림권공(竹林權公)’으로 귀봉은 ‘귀봉권공(龜峯權公)’으로 하였

다. <다음호에 계속>

복야공파부녀회 임시총회 개최



△복야공파 부녀회 임시총회에서 권계중 상임부총재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

안동권씨 복야공파부녀회(회장 권대란)는 8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대화동 복야공파총회관 회의실에서 자문위원과 부녀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권오의 총무부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시조묘소(始祖墓所) 및 파조단소(派祖壇所) 망배(望拜)와 상음례(相音禮)가 있었다. 권대란 회장이 유고로 불참하여서 권계중 파종회장이 임시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파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까지 조상의 향사나 문중 일에 남자들만 참여하

였는데 지난 2010년 부녀회가 창립된 이후 부녀회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우리 모두는 남남이 아니고 촌수를 따질 수 있는 가까운 집안의 딸과 며느리들의 모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녀회가 창립되고부터 권문(權門)의 대소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복야공파의 부녀회 활동이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다”고 자랑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의 부녀회활동 상황을 소상히 털어 놓기도 하였다.

권두우 교문은 격려사에서 “부녀회 임원이나 회원들이 사이가 무슨 권력을 피우거나 이권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같은 성씨끼리 집안 식구처럼 오손도손 모여 재미있게 지내야 한다.”고 하며 “부녀회원 모두는 족의(族誼)를 돈독히 하고 친선(親善)을 다져

安東權氏耆老會 譜學講義

2014년 8월 11일 11시경 서울성북구 정릉동 16-48 기로회 사무실에서 월례회를 위하여 회원 20여명이 참석하여 기로회 사무국장 權炳逸의 사회로 국민례와 시조대사공 묘소를 향하여 망배를 하고 權貞澤耆老會長의 인사에 이어서 회장의 보화강외에 들어갔다.

강의내용: 始祖 太師公 春秋享祀 祝文과 笏記

안동 향사에 하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春秋享祀文 奉讀과 설명을 하고 모두 공손

한 마음으로 회원들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고 보기 좋은 모습이었다. 다음은 郎中公 春秋享祀 祝文을 각각 奉讀하여 새로이 이단 된 남중공 아시조 시조 태사공 부자분의 축문을 봉독하였다. 봉독은 실제로 향사에 참석하여 제례를 모시는 기본으로 하였다.

이어서 삼육대학교수 핵융 씨의 강의가 있었는데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깃들여 보이고 회원들이 열심히 경청하였다. 이어서 기로회는 앞으로 쓸모없는 노인

들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조금이라도 아는 것을 가르쳐주고 인도하여 우리세대에 못한 일들을 하였으면 하고 우리의 뿌리를 생각하고 혈통을 지키는데 노력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안동권씨 기로회는 모여서 좌담하는 곳이 아니라 족친간의 의사소통과 안부를 묻고 알리고 방향을 잡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었으면 한다.

안동권씨 기로회는 노인들의 머리를 맑게 하는 휴식처로 생각하고 모두 참여하여 즐거운 강의 학습장이 되기를 바란다.

<安東權氏耆老會會長 權貞澤>